

고향의 소리 그리며 이국땅에 잠든 영혼

작곡가 윤이상의 향수 14 통영 용화사(龍華寺)

1972년 8월 1일, 독일의 뮌헨 국립오페라극장에서는 뮌헨올림픽을 축하하는 오페라 한 편이 무대에 올려졌다. 제목은 '심청'이었고, 작곡가는 윤이상(1917~1995)이었다. 올림픽을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에게 독일이 준비한 오페라는 바그너도, 베르디도, 푸치니도 아닌 한국인 윤이상이었다.

윤이상은 경남 통영에서 나고 자랐다. 늘 푸른 바다가 눈앞에 있었고, 도솔암, 용화사 등 천년고찰을 품은 마복산이 또한 곁에 있었다. 바다에서는 파도소리와 어부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고, 마복산에서는 북소리, 예불소리, 범패소리가 들려왔다. 숲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좋아했던 꿈 많은 소년 윤이상은 마흔이 되어 유럽으로 떠났다. 그리고 그는 독일에서 세계적인 작곡가가 된다. 고국에 돌아와 자신의 음악을 가르치고 싶었지만 그는 그 꿈을 영영 이루지 못했다.

"고향 바다요? 가고 싶죠. 가고 싶어요. 고향 바다는 어릴 적 내 꿈을 키워준 곳이에요. 지금 나는 세계적인 작곡가로 그 꿈을 이루

었지만 이 머나먼 땅에서 이렇게 늙어가도록 고향에 갈 수 없다 나... 내 마지막 남은 꿈은 고향 바닷가에서 파도소리 들으며 잠드는 거예요." [인용문 출처 · 작곡가 윤이상 이야기 나비의 꿈]

2007년 9월 29일, 마복산 용화사에 특별한 손님이 왔다. 윤이상 씨의 부인 이수자 여사와 그의 가족들이었다. 40여년 만에 밭아 보는 고국 땅, 남편의 고향이었다. 통영이 낳은, 아니 한국이 낳은 현대음악의 거장 윤이상은 고국에서 잠들지 못했다. 그의 무덤은 독일 베를린에 있다. 1967년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그는 독일정부의 협조로 풀려났지만 죽는 날까지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다. 용화사는 통영에서 유년기를 보냈던 그가 자주 찾았던 절이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도랑을 둘러싼 소나무 숲은 안개에 반쯤 지워졌고, 보광전 지붕 위엔 산새가 날아와 앉아 있었다. 용화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은점 스님이 마복산 중턱에 절을 짓고 정수사(淨水寺)라 했고, 고려 원종 3년(1263)에 자운, 성화 두 화상이 마복산 제3봉 아래로 자리를 옮겨 천택사(天澤寺)라 했다. 인조 6년(1628)에 화재로 소실된 것을 영조 28년(1752)에 벽담 스님이 다시 짓고 용화사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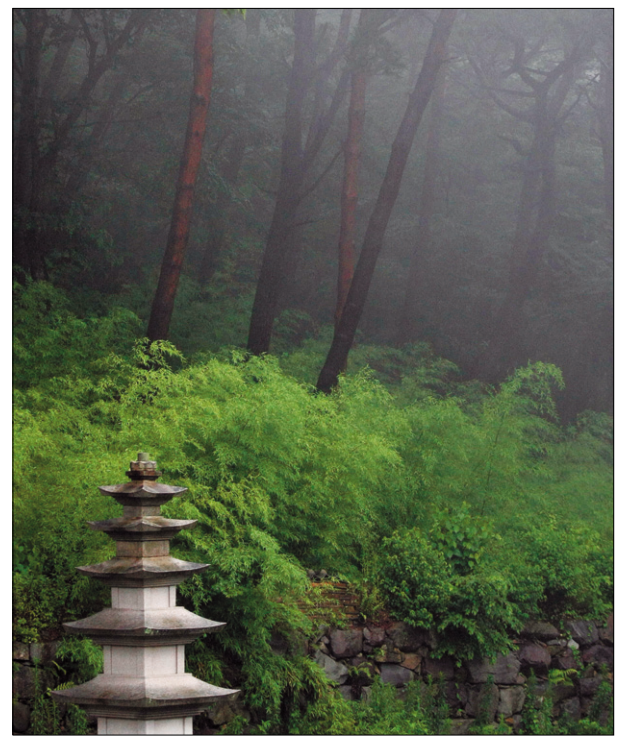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하지만 그의 음악은 한국에서 쉽게 들을 수 없다. 모차르트, 베토벤처럼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아니다. '심청', '연꽃 속의 진주', '바라', '나모(南無)' 등 그의 작품들을 쉽게 구할 수도 들을 수도 없다. 올 봄 개관한 통영의 그의 기념관에서 처음 '바라'를 들었고 '나모'를 들을 수 있었다. 98년도 한국뮤지컬대상 음악상을 받은 오페레타 '심청'을 작곡한 최귀섭(원광보건대 실용음악과 학과장) 교수도 '윤이상의 심청'을 들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의 고향 통영에 들어서면 그의 얼굴 사진이 붙은 현수막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통영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 곳곳에서 그의 이름과 얼굴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하지만 그의 음악은 쉽게 들을 수 없다.

밤이 대장경을 바탕으로 한 합창곡 '울마니 반메훈(연꽃 속의 진주)'이나 서양에 전한 우리의 이야기 '심청' 등 그의 많은 음악들을 끝내 들지 못했다. 그의 고향인 한국에는 그의 무덤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영혼이라 할 수 있는 그의 음악이 우리 곁에 많이 없었

다. 불어온 바람에 숲이 웅성거렸다. 지붕 위에선 산새가 지저귀고 추녀 끝에선 풍경이 울었다. 숲에 고인 안개는 음계와 음계 사이의 침묵처럼 나무와 나무 사이를 채웠고, 악보에 그려 넣을 수 없는 산새소리와 풍경소리는 어제 처음 들은 '바라'를 떠오르게 했다. 늘 듣는 풍경소리와 산새소리가 용화사 도랑에서는 윤이상의 현대음악처럼 들려왔다. 용화사에 간다면 윤이상의 음악을 듣고 갈 일이다. 모든 소리가 음악으로 들려오기 때문이다.

글 · 사진 = 박재완 기자 wanhollo@hanmail.net



부도밭 뒤로 보이는 소나무 숲

전강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정맥선원 여름수련회

77조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78대 대원 전법선사님께서 주재하시는 정법도량, 국제 정맥선원이 여름수련회를 개최합니다. 명안종사인 대원 선사님이 하택 신회대사의 현종기를 수련회 기간 동안 법문하십니다. 현종기는 육조대사의 법의 골수를 담은 글로서 그 법을 직접 이어 받은 78대 대원 선사님의 육성으로 이 법문을 듣는다면 깨달아 생사해탈하여 영원한 낙을 누릴 정법의 인연이 될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양 나라를 편 대선지식의 회상에서 정법의 진수를 누리십시오.

국제 정맥선원의 수련회는 종파와 종교를 초월합니다. 어떤 종교, 종파에 속해 있더라도 상관없이 다만 깨달음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 시 : 8월 12일(목) 오후 2시 - 8월 15일(일) 오후 2시
회 비 : 1인 8만원 / 가족할인 1인당 6만원
준비물 : 세면도구, 간편복장 (발우 대어, 현종기 무료제공)
전 화 : 031-531-8805 / 010-8980-9442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140번지
홈페이지 : www.zenparadise.com

* 여름수련회로 인해 8월 전국법회는 쉽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 전통
조상의 얼과 온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분 | |
|--------------------------------|---------|
| 가 루 죽염 125g | 27,500원 |
| 가 루 죽염 230g | 50,000원 |
| 알갱이 죽염 125g | 30,000원 |
| 알갱이 죽염 230g | 55,000원 |
| 2번 구분 | |
| 보급형 민속죽염 500g | 10,000원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마용) | |
|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1985-1135 / 0541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동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귀사와 귀하의 흥보를 대행해 드립니다

"저비용 · 고효율" 흥보대행 서비스, 주요 온라인 매체에 빠르게 전송

DoM NAVER NATE YAHOO! Paran

최소 비용으로 최고의 흥보 효과를 위한 취재 및 보도자료 서비스입니다. 대성사의 흥보대행 서비스는 10년 노하우의 전문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주요 온라인 매체에 빠르게 전송 합니다.

서비스 내용

- **보도자료 원문 서비스:** 보도자료 원문이 국내 주요 포털에서 검색 가능
- **보도자료 작성 서비스:** 대성사 기자가 현장을 방문,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주요 포털에 제공하는 서비스
- **기사화 서비스:** 대성사 기자가 현장을 방문, 기획 취재후 해당기사를 언론사와 포털에 제공하는 서비스
- **행사 사진촬영 서비스:** 대성사 기자가 현장을 방문, 기획 취재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하여 CD로 제작 서비스

보도자료 및 취재기사는 국내 주요 포털 (다음·네이버·네이트·야후·파란) 에서 만나 보실수 있습니다.

기사제보·구독·광고문의

E-mail : ksson108@hanmail.net

본사 대성사 ☎ 010-9522-8453 (육천 대성사 혜철 스님)
☎ 010-5078-9748 (이한배 기자)
충북지사 ☎ 043-732-5560
대전지사 ☎ 042-223-8214